

로버트 치즈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세션 7(B): 아모스 7:1-8:3, 심판이 임함 피할 수 없는

로버트 치즈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7차시(B), 아모스 8장 4절-9장 10절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아모스 연구를 계속해 봅시다. 8장 1절에서 멈췄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상징적 정물화"라고 제목을 붙인 8장 1절부터 3절은 이어지는 내용과 잘 어울립니다. 선지자가 본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처음 두 가지는 영화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나라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 농작물을 망쳐 놓은 후, 불이 그 땅을 덮쳐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용서하라, 그리고 멈추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상에서 주님은 마치 스냅사진처럼, 벽 옆에 다림줄을 들고 있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앞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고려해 볼 때, 그 벽은 다림줄을 놓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에게 심판의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간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애초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아모스가 제사장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모스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을 향해 매우 무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아모스가 개인적인 경험, 즉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엘리트 집단의 일원입니다. 그는 베델, 즉 왕의 성소라고 불리는 곳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이 선을 훨씬 넘어섰고,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왕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 마지막 환상이 바로 그 요점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심판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결정하셨고, 이 환상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읽어 봅시다. 주권자께서 제게 보여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익은 과일이 담긴 바구니입니다.

여름 과일 바구니를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무화과와 석류도 들어 있었을 텐데, 그냥 정물화일 뿐이죠. 특히 옛날 화가들은 그냥 정물화를 그렸죠.

탁자 위에 놓인 평범한 물건들을 그려서 정물화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의 그림이 있고, 이 익은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예츠입니다. 카예츠.

기억해. 뭐가 보이니, 아모스? 그가 물었다. 잘 익은 과일 바구니라고 아모스가 대답했다.

아 칼루브 qayetz. 그래서 그는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잘 익은 과일 바구니로 대답했습니다.

여름 과일 한 바구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때가 무르익었으니,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성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수많은 시체가 사방에 널려 고요하리라.

이 책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심판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NIV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심판의 선포와 카예츠 환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가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는, 그가 '카 예츠'를 보고, 여름 과일을 보고, 주님께서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NIV는 '익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관관계가 있음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히브리어 단어는 '끝'을 뜻하는 '카예츠', '카예츠'입니다. 유사점을 아시겠어요? 카예츠, 카예츠. 그러니까 이건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소리 유희 중 하나인데, 영어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끝'을 뜻하는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카예츠'를 보면, 비슷한 발음의 '카예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름 과일은 일종의, 여름 과일 수확은 농사철이 끝나갈 무렵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말이라는 개념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름 과일을 통해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백성에게 종말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게제르 달력, 우리가 발견한 문서가 있습니다. 게제르 달력이라고 불리는 비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사철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여름 과일은 농사철이 끝나는 8월과 9월에 수확되었습니다. 게제르 달력에서는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카예츠,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농사철의 끝, 즉 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장난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어를 잘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요점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이 일련의 환상에 대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가혹해 보이는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겉보기에 가혹해 보이는 심판을 이해하려면 그분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것을 추론하며 그분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선하시며,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옥,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잖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형벌을 내리신 후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합니다 .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정의로우시므로, 그분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다림줄을 통해 보도록 강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곁에 다림줄을 두셨고, 우리는 모두 굽은 벽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정의와 거룩하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시므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이 심판 의 어떤 부분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 직접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델러스 신학교에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 과목의 주된 과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위대하시지만, 동시에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편향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 구약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위대하시지만 항상 선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 안에 악마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모두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주권자는
 아니시잖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악과 싸우고 계시는데,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의 편에 서 계시고, 마치 악이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처럼 선과 악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몇 년 전 한 젊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 만한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수십 명의 신학교 교수나 대학 교수, 성경 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한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그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결국 그는 그의 길을
 갔고 저도 제 길을 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가 보낸 편지에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제가 처리해야 했던 건 그냥 편지였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답장을 쓰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좋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 편지를 최종 과제로 제시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를 살펴보고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 봐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년지서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문제와 호세아서를 고민하도록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호세아서를 다루지 않지만,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아모스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양쪽 모두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유대-기독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에 메시아닉 유대인이 두어 명 있는데, 그들은 보수적인 유대교 운동에 속해 있고,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이 최종 과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아모스가 폭로한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사실상 동시대 인물이었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자녀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빼앗아가실 것이고, 이는 군사적 침략과 자녀 학살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었고, 가나안의 다산의 신인 바알을 위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자녀와 농작물을 준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는 다산의 신이기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주신 바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으로는 안 된다. 자녀는 내가 준 축복이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거부하고 다른 신에게로 돌아서면 내가 그 축복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벌하실 때 흔히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축복을 거두십니다. 호세아서에는 가혹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포식자로 오셔서 백성을 공격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사자나 곰처럼 무서운 존재죠.

동시에 호세아 2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을 그들의 애인들과 갈라놓을 것이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불충실했고, 호세아는 사랑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놀라운 사랑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바알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게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가 사용하는 이미지이며, 쉽게 표현하자면, 그는 고멜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속삭일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낭만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그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녀를 그녀의 애인들, 거짓된 애인들로부터 떼어내고 그녀의 애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말 부드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호세아서 11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새로운 이상적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11장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 우상을 섬겼습니다.”

글쎄요, 그건 예수님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적절한 적용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경험은 초기 이스라엘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이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광야에서 성공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본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맥락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지, 거짓 신들에게로 향하고 주님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은 엄중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커튼을 걷어 당신의 마음 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그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분은 근처 도시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사용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띄니다.

완전히 멸망시킬 수 는 없어 . 내 자비가 내 안에서 돌아서서 너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기 때문이지.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굳이 비교하거나 대조할 필요가 있을까? 내게는 감정이 없고, 너는 감정이 있다는 거야. 아니, 주님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신으로서 나는 내 감정을 완벽한 균형으로 조절할 수 있어. 거룩함과 정의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분노를, 자비와 연민, 그리고 너를 용서하려는 갈망으로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보고, 마치 신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처럼 묘사돼.

하나님은 감정적인 존재이고,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가혹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이미지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하나님 자신도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 내가 하나님을 의인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은 '글쎄, 하나님은 실제로 감정이 없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만, 아모스와 같은 구절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재판관, 이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뎛기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허락하셨지만, 불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 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연관시키려고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구절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 해야 합니다 . 저는 호세아서와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연관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 구절을 다른 본문들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제게 편지를 써준 친구, 제 친구, 펜팔 친구가 된 친구에게 한 말 중 하나는, "하나님은... 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인(神人)이신 예수님, 신격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정의와 죄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 예수님만이 아니라, 신인(神人)

이신 예수님 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또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신비가 얹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점에서는 답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인 8장 4절부터 9장 10절까지, 우리는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A 부분을 다루었고, 이제 B 부분을 다룰 차례입니다. 제 개요에는 세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8:4-14).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한 구절에서 주님께서 일식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한낮에 어두워지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일식이었고, 그들에게 큰 징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의 행위로 여길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숨바꼭질에서 항상 승리하신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9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체에 넣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사물을 분리하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체에 넣어 흔들어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는 아모스에서 일어날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체에 넣어 흔들어 깨뜨리시는 이 이미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땅의 힘없는 자를 죽인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우리는 전에도 이 말을 들었기에, 이 불의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러하니, 초하루가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겠느냐?” 그들은 초하루와 관련하여 종교적인 절기를 지냈고, 안식일이 지나서야 우리가 밀을 팔 수

있게 되었는데, 되를 아끼고, 값을 올리며, 부정한 저울로 속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고, 궁핍한 자를 신발 한 켤레로 사들이고, 행상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급된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좁은 찌꺼기 까지 팔고, 알곡과 겨를 함께 팔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들, 즉 서성거리는 자들, 즉 사람을 사고팔고 싶어 하는 자들, 그리고 농작물과 곡식 같은 것들을 사고파는 자들,로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의식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런 종류의 경제 활동이나 노예 무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를 살펴보면 십계명 중 아홉 가지가 어겨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중 아홉 가지가 어겨질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안식일입니다. 음, 정말 예외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글쓴이가 요점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식일에 얹아 있을 때, 아, 그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 즉 하나님께서 자비로 허락하신 일주일의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누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조차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의 본보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들이 안식일의 영을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계량 단위를 인색하게 하고, 가격을 올리고, 부정직한 저울로 속이는 거죠. 좋아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쓴 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방법은 도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량 단위인 에바를 작게 만들고, 세겔을 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겔은 무언가를 살 때 쓰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계량할 때, 건량 단위인 에바보다 작은 단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손님은 자신이 산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죠. 그러니까, 곡물 한 포대를 사고 싶으시군요 . 제 알파 바구니를 가져오겠습니다.

와, 와. 더 작은 바구니를 가져오세요. 여기 바구니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적은 양을 가져다 가 곡물의 양을 재보세요. 여기 진실의 한 알이 있습니다.

아니요, 1에파(약 1g)보다 적어요. 알파 (약 0.8g) 정도일 거예요 .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자신이 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표준 세켈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여 구매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고객은 실제로 지불 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켈을 주셔야 합니다.

음, 그는 세켈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세켈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섹션을 계속 읽다 보면 , 저울에 조작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울을 이용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한 거죠.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울을 구부렸거나 뭐 그런 거겠죠. 저울로 딸기 무게를 재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딸기를 사 왔는데, 윗층은 보기 좋은데 아랫층으로 내려가 보니 다 썩어 있잖아요.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5분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바 바구니에 겨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만큼 많은 곡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방식 때문에 얻는 게 적고, 게다가 진짜 곡식과 겨가 섞인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어제 강조했듯이, 성경 본문을 현대적 맥락에 맞춰 해석할 때는 현재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기독교 사업가, 어떤 사업가에게든 상당히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늘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부정행위에 대해 당시와 다르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 관행이 공정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수익을 내려면 이런 일을 해야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방법대로 하세요. 공정하게 처신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축복하심으로 놀라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풍조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은 풍조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으며, 당신이 그분을 공경할 때 그분께서도 당신을 공경하실 것입니다. 엘리와 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 하고 ,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멸하겠다." 그러니 주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는 이 심판의 말씀에서 고발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NIV는 "나는 야곱의 자랑이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였노라"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은,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인데,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야곱의 자랑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비꼬는 표현입니다.

백성이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자랑하노라. 그들이 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결코 알 수 없으리라. 나는 주님께서 야곱의 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해석하는 번역을 좋아하는데, 그 번역은 훨씬 더 비꼬는 것 같다.

야곱의 교만은 말 그대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맹세는 변함없고 영원한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의 교만과 자만심이 심판받지 않는 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제 생명이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듯이, 그들의 교만함도 저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성품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오만함에 맹세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외에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땅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심판의 선포로 넘어갑니다. 이 일로 인해 땅이 떨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온 땅이 나일 강처럼 솟아오를 것이다. 솟구쳤다가 이집트 강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그들은 나일 강에 대해 알고 있었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일 강은 오르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땅을 흔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에도 똑같은 걸 적용해 볼게요. 지구가 진동할 거고, 여러분은 지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시죠, 지진 장면들을 보면, 마치 공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바로 그것이 그분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진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신현(神現)으로, 심판으로 나타나실 때 종종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하러 오실 때 마치 땅 자체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는 거죠. 땅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테니까요. 땅 자체가 심판의 결과를 겪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마치 땅이 의인화된 것 같아요. 아주 시적이고, 은유적이죠.

선지자가 이 땅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좋은 시예요. 좋은 은유적 언어죠.

그날에, 주권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정오에 해를 지게 하여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내 생각에는 일식처럼 들린다. 그들도 일식을 경험했고, 우리는 문화와 심지어 성경을 통해 일식이 신의 주요 징조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식은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있었다.

바빌론이 함락되기 전에 월식이 있었는데, 당시 바빌론 왕은 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월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월식이 신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일식이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종류의 월식을 가져오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분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이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심판이 임한다. 내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울음으로 바꾸겠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자루옷을 입히고 머리를 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들이 행했던 문화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깎고 베옷을 입으며 지금 삶이 비정상적임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겪었고, 그것을 애도하고 있으며, 고대 근동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바알 신이 죽으면, 그는 죽음에 패배 하여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최고신 엘이 내려와 자루옷을 입고 그의 몸을 베며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애도 의식이 매우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중동 TV 장면을 보면, 그들이 애도할 때, 화가 날 때 정말, 정말 감정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시간을 외아들의 애도처럼 만들고, 그 끝은 쓰라린 날 처럼 만들 겁니다. 아이를 잃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특히 외동아이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외동아이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그 정도일 겁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곧 만연한 죽음과 파괴를 슬퍼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외아들을 슬퍼하듯 말입니다.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권자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날이 오리라. 우리는 이미 문자적인 기근을 묘사하는 데 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셨는데, 적어도 일부 지역에는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하거나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메시지를 원하지만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주님께 불순종하여 더 이상 주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뿐, 어떤 예언적 메시지도 받지 못했고, 주님도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절박해져서 엔도르의 영매인 마녀, 혹은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죽은 자들 과 접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입 닥쳐, 말하지 마"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에게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 입 닥쳐 , 여기서 나가, 우리는 네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적절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공격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비틀거리며 헤맬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겠지만, 결국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건장한 청년들은 갈증으로 기진맥진할 것이다. 맹세하는 자들,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해지지만, 그는 우상, 다양한 우상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사마리아의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죄가 우상 숭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는 자들에게, 저는 그것을 죄악스러운 우상 숭배, 즉 사마리아에 있는 죄악스러운 우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바알일 수도 있고, 가나안 신 바알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가나안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고,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들여왔습니다. 바알 숭배에는 아세라 숭배가 수반됩니다. 아세라는 숭배받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일 거야. 누가 “네 신이 살아 있느냐, 단아?” 라고 했는가? 첫 번째 여로보암이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처음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야훼의 상징으로 의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산의 상징입니다. 가나안적인 색채가 강하죠.

혼합주의적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바로 그 신일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바알 숭배와 더불어 그 신을 숭배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신처럼 확실하게, 문자 그대로 브엘세바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행법을 고려했을 때, 어떤 종류의 거짓된 예배 체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는 우상 숭배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가 브엘세바 남쪽에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그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유다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섹션의 첫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9장 10절까지 읽고 나서야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9장부터 시작해서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도나이이십니다.

주님을 주권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예배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방금 몇몇 예배 장소를 언급하셨죠. 단, 브엘세바, 사마리아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제단 곁에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단인가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어떤 제단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둥 꼭대기를 치면 문지방이 흔들릴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제단이 있는 성소가 떨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들을 온 백성의 머리 위에 내려치시오.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제단이 무너지면, 아니, 성전이 무너지면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뜻인 듯합니다.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입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여기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섹션의 핵심 주제로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요에서 이 부분을 “신은 숨바꼭질에서 항상 승리한다”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왜 그런 제목을 사용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심판이 임하면 항상 도망자, 피난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 있습니다.

까지 달려가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구절보다 앞서서 뛰어들었으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갑니다.

잠시 후 갈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아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지만, 거기서부터는 내 손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올, 즉 죽은 자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면, 땅속 깊이 파고들어서 나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안 돼, 안 돼. 설령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해도, 거기서 내가 끌어내릴 거야. 그러니 당연히 지하 세계로 파고들어 내려갈 순 없겠지.

그들은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극단까지 간다 해도 내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나를 피해 저 바깥 경계에 숨으려 한다면, 내가 너를 찾아내어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러니 이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메리즘(merism)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기 위해 반대되는 극단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들이 숨더라도, 그가 여기 있는 자들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들이 높은 카르멜 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추적하여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시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 높은 낮은, 하나님의 세상 어디든, 주님께서 그들을 잡으실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대행자, 요원들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몇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경의 시적 본문에는 일곱 머리를 가진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 이는... 시편 74편은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물리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자료에서 우리는 그분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분은 혼돈의 괴물을 지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녀석 이름이 그거야. 바다에 살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뱀이 저거일지도 몰라.

레비아단은 다른 곳에서는 뱀으로 불립니다. 그러니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봐, 악한 자들, 심지어 악의 세력조차도 결국 내게 복종할 거고,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잡아서 물라고 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어쩌면 그런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에 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전형적인 파랑새나 개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냥 개라고만 하겠습니다. 문맥상 일반적인 의미라는 걸 알고 있죠. 이 기사가 항상 단수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뱀, 독사가 물 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아시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바다뱀 같은 거요. 그래서 해설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뭘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나쁜 소식이죠.

하지만 네가 알아차린 그 뱀은 네게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에게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그들을 죽이리라. 그러니 네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 심판은 유배를 수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음, 우리가 유배를 가게 되면 이곳에서 멀어질 거야. 여기는 주님께서 사시는 곳이잖아.'

그들은 주님을 자기 영토의 수호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주님이 한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신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설령 네가 유배 중이라 할지라도, 나는 칼을 명하여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아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할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라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 단어는 때때로 악을 의미하지만, 주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재앙, 재앙, 또는 악으로 번역될 수 있다.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 NIV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 대신 해를, 축복 대신 재앙을, 그래서 설령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포로 생활에서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5절과 6절을 읽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에는 지금까지 아모스에서 보았던 부분들 중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4장에 있고 다른 하나는 5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선포들 가운데서 주님은 멈추시고, 그분은 단지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시편의 찬송가에서 볼 수 있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능하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언적 심판의 말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낮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군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군대를 이끄시는 야훼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땅을 만지시니 땅이 녹는다. 내겐 심판처럼 들린다. 그분이 땅을 만지시니 땅이 녹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다.

그러니 이것이 심판입니다. 온 땅이 나일 강처럼 솟아올랐다가 이집트 강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땅과 사람들이 지진, 즉 진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높은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높은 궁궐을 짓는다면,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며,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의 순환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심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자연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이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분의 심판 선포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위협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잠시 쉬고, 다음 강의인 9장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치죤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7차시(B), 아모스 8장 4절부터 9장 10절까지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